관계부처합동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11. 18.(수) 12:00
(지 면) 2026. 11. 19.(목) 조간

데이터에서 정책으로…
생활인구, 인구감소지역 맞춤처방에 쓰인다

- 행정안전부, 국가데이터처, 지방정부 손잡고 생활인구 심층분석 첫 실시
- 가평, 신안, 대전 중구 3개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생활인구 심층분석
-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·교통개선·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 지역맞춤 정책으로 이어져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와 국가데이터처(처장 안형준)는 경기도 가평군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, 대전광역시 중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「**지역맞춤형 생활인구* 심층분석**」**결과**를 11월 18일 발표했다.

* 생활인구 = 등록인구(주민등록인구, 등록외국인) + 체류인구(월 1회, 하루 3시간 이상 체류)

이번 사업은 지방정부의 정책수요를 출발점으로, **행정안전부**와 **국가데이터처 본부, 경인·호남·충청지방데이터청, 3개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했다.**

기존 공표자료가 지역별 생활인구의 규모와 기본 특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, 이번 시범사업은 이를 바탕으로 **지역별 정책현안에 맞춰 유입·체류·이동·소비 등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**하고, 그 결과를 **지역 정책에 활용**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>> 시범지역 의견을 반영해 생활인구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하다

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시군구·월 단위 공표자료에 더해 **읍면동, 일자, 시간대 단위로 분석범위의 해상도를 높여,**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**어디에 머물고 이동하는지**를 세밀하게 살펴보았다.

세 지역을 주요 특성에 따라 관광형, 도서형, 도시형으로 나누고,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가평군은 계절별 체류·재방문 특성을, 신안군은 접근성에 따른 체류행태를, 대전 중구는 주요 방문거점 중심의 지역 내 이동을 중점 분석했다.

관광형인 **가평군**은 체류인구의 86.6%가 수도권에서 유입된다. 성수기(5~10월) 월평균 체류인구는 약 94만 명으로 비수기의 약 1.7배였지만, **평균 체류일수와 숙박일수는 비수기에 더 길고 재방문율도 높았다.** 30분 이상 방문한 인구는 설악면이 가장 많았으나, 같은 달 가평군 체류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평면이 가장 많아 **방문이 집중되는 곳과 실제 체류로 이어지는 곳이 달랐다.**

도서형 지역인 **신안군**은 **접근성에 따라 머무는 방식에 차이**를 보였다. 2025년 **읍면 방문인구의 83.3%는 연륙지역*에 집중**됐지만, **도서지역**의 **방문시간은 연륙지역보다 1.8배** 길고, **숙박형 방문비중도 18.6%p 높았다.** 또한 **관광 성격**이 강한 체류유형으로 분류한 사람의 **50.6%는 신안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함께 방문**했으며, 신안 방문 직전·직후에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권과의 연결이 두드러졌다.

* 연륙지역: 교량·도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

도시형 지역인 **대전 중구**는 **주요 방문거점 간 이동이 뚜렷**했다. 평소에도 원도심 주요 거점간 연계가 두드러졌는데, 특히, 야구경기장이 위치한 부사동의 2025년 정규시즌 **경기일 일평균 방문인구**는 24,810명으로, **비경기일 평균**(9,839명)**의 약 2.5배에 달했다.** 경기일 부사동 방문자의 절반 이상은 같은 날 다른 동도 함께 방문해 **야구장 방문이 주변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모습**을 보였다.

<한눈에 보는 지역별 주요 분석결과>

지역	핵심 질문	대표 분석 결과 및 정책 방향
관광형 경기 가평군	많이 찾는 시기와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 시기가 같은가	**(분석결과)** "계절에 따라 머무는 방식이 다르다" 체류인구 8월 최대(121만 명), 12월 최소(44만 명), 재방문율 12월이 8월보다 7.3%p 높음 ⇨ **(정책방향)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, 관광콘텐츠 개발**
도서형 전남광주 신안군	거리와 접근성에 따라 머무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	**(분석결과)** "접근성에 따라 머무는 방식이 다르다" 방문인구의 83.3%가 연륙지역에 집중되나, 도서지역이 1.8배 오래 머물고, 숙박형 방문 비중도 18.6%p 더 높아 ⇨ **(정책방향) 여객선 운항체계와 교통편의 개선**
도시형 대전 중구	주요 방문거점에 모인 사람이 주변 지역으로도 이어지는가	**(분석결과)** "거점이 사람을 모으고, 원도심을 잇는다" 야구 경기일 부사동 방문 비경기일의 2.5배, 방문자 절반 이상이 같은 날 중구 내 다른 동도 방문 ⇨ **(정책방향) 방문거점 연계 원도심 상권 활성화**

>> 생활인구 분석이 지역별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진다

분석결과는 각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. **가평군**은 읍면별 방문특성을 반영하여 생태안보문화관광지구, 자연치유형 산장관광지 등 **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사업**에 활용한다. **신안군**은 읍면별 유입 특성을 바탕으로 생활권을 고려한 **여객선 운항체계와 교통편의 개선** 방안을 모색한다. **대전 중구**는 원도심 주요 방문거점과 야구장 방문객의 이동 특성을 바탕으로 야구장과 **원도심 상권을 연계한 활성화 사업**을 구체화한다.

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의 **제도 활용실태, 정책효과성, 주민체감도** 등을 **분석**하여 향후 생활인구 **정책방향 개선**을 **검토**해나갈 계획이다. 국가데이터처는 시범사업의 분석방법을 정리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석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본부·지방청·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**지역 현안에 맞춘 분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**

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"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축적해 온 **생활인구 데이터를** 실제 **지역 정책에 접목해 맞춤형 정책 수립의 가능성**을 **확인**했다는 점에서 **의미가 있다**"며, "앞으로도 **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**하여 **생활인구가 지역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** 유용하게 **활용**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**"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정책질문을 생활인구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사례"**라며, "생활인구가 지역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를 넘어 **지방정부의 정책 설계와 점검에 활용되는 지역특화 데이터**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김민정 (044-205-3501)
		담당자	주무관	김용희 (044-205-3519)
담당 부서	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통계과	책임자	과 장	김근식 (042-481-6903)
		담당자	사무관	임병선 (042-481-373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[2025 지역맞춤형 생활인구] 경기 가평군 주요 분석결과

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심층분석

수도권의 쉼이 다채로운 곳, 경기 가평군

국가데이터처

생활인구	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	성수기(5~10월) 평균 체류인구	숙박형 체류인구 비중
82만명	**11.8**배	**94**만명	**45.6**%
등록 6만 + 체류 76만	가평군 11.8 / 인구감소지역 4.5	비수기 57만의 1.7배	숙박자 평균 숙박일수 2.3일
		평균 체류일수 성수기 2.4일 · 비수기 2.7일	

※ 모든 수치는 2025년 연평균 기준 (별도 표기 제외)

01 유입·소비·연령

유입 수도권에서 온다

86.6% 수도권 유입 비중



인천 6.6 · 강원 4.6 · 기타 8.8 (%)

수도권 권역*별 유입 TOP 5 (%)

1	경기 남부	25.8	20만 명
2	경기 북부	18.4	14만 명
3	서울 동북권	13.1	10만 명
4	서울 동남권	9.3	7만 명
5	서울 서남권	8.1	6만 명

* 권역은 생활권 기준 구분(서울 5개, 경기 남·북부) · 세부 기준은 보도자료 부록2 참고

소비 먹고, 장보고, 즐긴다

105천원 1인당 월평균 카드사용액

업종별 카드사용액 비중 (%, ■ 1칸 ≈ 1%)



음식	32.3
종합소매	20.9
문화여가	19.2
운송교통	8.3
전문소매	6.5
숙박	6.0
기타*	6.9

* 기타: 보건의료·개인서비스·교육

문화여가 성수기 23.5% ↔ 비수기 14.8%

연령 2030이 찾는 곳

33.3% 체류인구 중 20~30대 비중

20~30대	
등록인구	17.9%
체류인구	33.3%

60세 이상	
등록인구	43.2%
체류인구	20.5%

체류인구 최다 연령대 30세 미만(22만 명)

들어올 땐 춘천, 나갈 땐 남양주

등록지 제외 · 체류 직전·직후 연계 비중(연간 누적)

진입 직전 체류지 1위 **춘천시 8.6%** → **가평군** → 진출 직후 체류지 1위 **남양주시 9.3%**

02 읍면별 특성

조종면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 곳

3개월 내 재방문율	방문시간	카드사용액 문화여가 비중
23.8% 1위	10.4시간 1위	51.6% 1위 (단일읍면 방문자 가평군 내 사용액)

상면 봄이 정점, 사계절 나들이

최대 방문월	최대/최소 방문월	숙박형 방문 비중
5월 타읍면 8월	2.4배 최저	38.2% 2위

청평면 당일치기 중심지

체류기준 충족 인구	당일치기	방문시간
33만 명 1위	59.9% 1위	6.0시간 최단



북면 숙박이 중심인 곳

숙박형 방문 비중	최대/최소 방문월	카드사용액 종합소매 비중
58.2% 1위	5.4배 1위	39.7% 1위 (단일읍면 방문자 가평군 내 사용액)

가평읍 축제·관광·교통 거점

숙박형 방문 규모	체류기준 충족 인구	읍면 방문인구
7만 명 1위	28만 명 2위	39만 명 3위

설악면 고속도로 길목

읍면 방문인구	체류기준 충족 비율	재방문율
89만 명 1위	29.8% 최저	17.5% 2위

* 체류기준 충족: 읍면 방문인구(30분 이상) 중 같은 달 가평군 체류인구에 해당하는 사람. '읍면 방문인구' 외 읍면별 지표는 체류기준 충족 기준 · 방문시간은 방문일당 평균

붙임 2 [2025 지역맞춤형 생활인구] 전남광주 신안군 주요 분석결과

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심층분석

머물다 보면 살게 되는 섬, 전남광주 신안군

국가데이터처

생활인구	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	체류자 1인당 일평균 카드 사용액	체류인구 재방문율
19만 명	**3.7**배	**38**천 원	**34.5**%
등록 **4만** + 체류 **15만**	5월 최대 **5.7배**	원거리 거주자 **44천 원**	근거리 거주자 **61.3%**

01 연륙·도서 지역

※ 모든 수치는 2025년 연평균 기준 (읍면 방문인구: 하루 30분 이상)

연륙·도서 다리로 잇는 섬, 배로 찾아가는 섬



연륙 vs 도서 머무는 방식이 다르다

읍면 방문인구 기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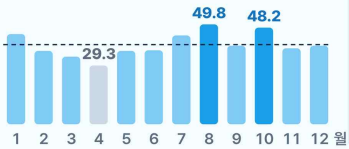
평균 방문일수 2.1일 vs 3.0일 · 숙박일수 3.1일 vs 3.7일

02 숙박·연계이동

※ 모든 수치는 2025년 연평균 기준 (별도 표기 제외)

숙박 여름·가을엔 둘 중 한 명이 묵는다

39.7%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



숙박지 TOP 5 (%, 연간 누적)

1	흑산면	도서	20.3
2	자은면	연륙	16.5
3	증도면	연륙	12.6
4	압해읍	연륙	10.1
5	임자면	연륙	8.1

연계 관광객 절반은 다른 곳과 엮어 온다

50.6% 관광형 체류자 중 연계형 (전체 44.5%)

관광형 체류자 방문 유형 (%, 연간 누적)



신안 관광, 서남해안권으로 이어진다

서남해안권 목포시·영암군·무안군
관광형 체류자 당일치기·단기숙박 체류인구 (연간 누적)

신안 오기 직전 방문 권역
서남해안권 47.5%
목포시 36.4% · 무안군 7.9%

>>> **신안군** >>>

신안 다녀간 직후 방문 권역
서남해안권 48.5%
목포시 38.2% · 무안군 7.7%

03 등록인구 특성

※ 신규 등록인구: '25.10. 이후 전입자 (전입 익월부터 분석)

전입 와 본 곳에 산다

82.9% 전입 전 신안군 체류 경험률

'25.10.~12. 전입자 기준, 전입 전 1년간 체류 경험



전입인구*	전출지 1위 전남*
5,895명	**67.0**%
'25.10.~'26.6.	수도권 14.9%

전입 전 1년 중 평균 **5.0개월**은 신안군을 찾았다
전입자 중 **30세 미만**이 28.5%*로 최다

* 국가데이터처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

정착 기존 주민과의 거리, 좁혀 가는 중

신규 등록인구 / 기존 등록인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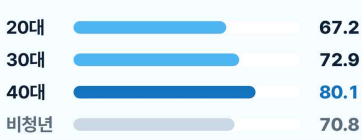
* '25.11.~'26.6. 월평균, 빈 칸 = 기존 등록인구와의 차이

신규 체류일수 2월 **10.0일** → 6월 **13.9일**
일평균 카드 사용액은 신규가 **25천 원**으로 더 많음

청년 섬 안을 넓게 오간다

74.8% 타 읍면 방문 경험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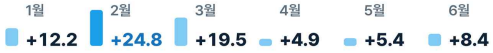
청년(20~49세) 등록인구 연령대별 (%)



월평균 카드 사용액 **349천 원**
종합소매 **44.5%** · 음식 23.1% · 운송교통 22.1%

등록인구 카드 사용 총액, '26년 상반기 매달 전년보다 증가

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(%) · 신안군 내 카드 사용액 중 등록인구 사용분



붙임 3 [2025 지역맞춤형 생활인구] 대전 중구 주요 분석결과

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심층분석

사람을 모아 원도심으로 잇는 곳, 대전 중구

국가데이터처

생활인구	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	재방문율(3개월)	카드사용액 중 체류인구 비중
112만 명	**3.9**배	**54.3**%	**49.2**%
등록 **23**만 + 체류 **90**만	최대 5월 **4.5**배 · 최소 2월 **3.5**배	최고 12월 **56.7%** · 최저 5월 **49.5%**	1인당 월 **149천 원** · 하루 **64천 원**

01 유입·숙박·소비

※ 모든 수치는 2025년 연평균 기준 (별도 표기 제외)

유입 등록지별 체류인구

41만 명 대전 타 자치구

등록지별 체류인구 (만 명)

대전 41	그 외 지역 30
서구 18 · 동구 11 유성구 9 · 대덕구 5	전주 1 · 수원 1 **충청권 18** 세종 4 · 청주 3

대전 내 유입이 가장 많고, 충청권은 세종·청주·천안 순

숙박 체류 후 숙박지역

58.2% 중구 방문 후 대전 타 자치구에서 숙박

등록지 외 숙박지역 구성비 (%)



숙박지 상위 5개

1	서구	24.8
2	동구	17.1
3	유성구	10.3
4	대덕구	6.1
5	세종	3.4

* 대전 밖 25.8 = 충청권 12.8 + 기타 13.0

대전 밖 숙박지는 세종·청주·금산 순

소비 업종별 카드사용액

34.0% 음식 업종 비중

업종별 카드사용액 비중 (%)

음식	보건의료	전문소매	그 외
34.0	21.2	17.0	27.8

업종별로 두드러진 방문집단 (집단 내 비중 · 평균 대비)

음식	은행선화동+대흥동	62.0%	1.4배
보건의료	대사동	73.0%	4.6배
전문소매	부사동	48.6%	2.3배

* 평균 대비: 해당 동(조합)만 방문한 집단의 업종 비중 ÷ 상위 10개 집단 평균

음식·보건의료·전문소매 3개 업종이 72.2%

3명 중 1명 이상은 두 동 모두 방문
같은 날 두 동을 함께 찾은 비율

은행선화동 방문인구 중 **대흥동 34.8%** → 같은 날 함께 ← 대흥동 방문인구 중 **은행선화동 37.0%**

02 주요 방문거점

※ 일평균 방문인구 규모 기준 상위 5개 동 · 방문인구가 어디서, 누가 오고, 같은 날 어느 동과 함께 방문하는지

생활·교통 거점 대전 서구 중심 · 한 곳만 들름

태평2동
일평균 방문 **18,790명** · 5위

- 어디서: **대전 서구 44.6%** · 유성구 10.0%
- 누가: **60세 이상 남성 15.1%**
- 함께: **유천1동 19.0%** · 산성동 14.7%
  거점 중 한 곳만 방문 72.0%

오류동
일평균 방문 **24,444명** · 4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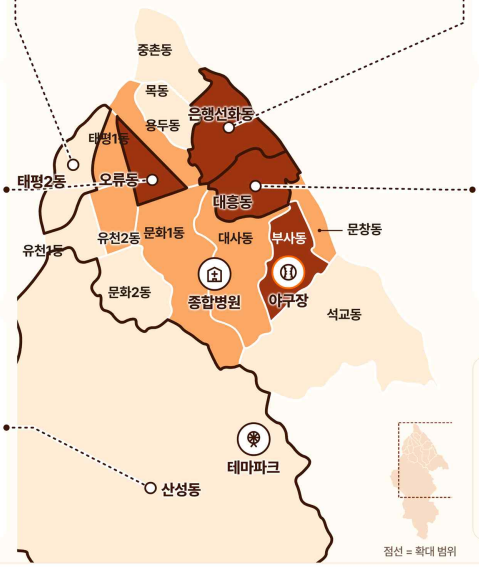
- 어디서: **대전 서구 27.2%** · 동구 11.4% 경기 7.7%
- 누가: **30세 미만 여성 13.9%**
- 함께: **용두동 19.1%** · 문화1동 15.8%
  거점 중 한 곳만 방문 **74.1%**

산성동
일평균 방문 **34,505명** · 3위

- 어디서: **대전 서구 34.5%** · 유성구 10.4%
- 누가: **60세 이상 남성 14.6%**
- 함께: 태평2동 8.0% · 유천1동 7.9%
  거점 중 한 곳만 방문 83.0% · 5곳 중 최고

부사동
야구 경기일 방문인구 비경기일의 **2.5배** · '25 정규시즌

- 어디서: **늘어난 방문인구 중 대전 서구 14.3%**
- 누가: **늘어난 방문인구 중 30세 미만 여성 26.6%**
- 함께: **경기 전후 대흥동 · 문창동 · 은행선화동**
  같은 날 2개 동 이상 방문 55.1% (중구 전체 35.2%)



원도심 거점 대전 밖·30세 미만 여성 · 함께 들름

은행선화동
일평균 방문 **51,650명** · 1위

- 어디서: 대전 서구 16.7% · 동구 14.9% **경기 11.1% · 서울 7.9%**
- 누가: **30세 미만 여성 25.4%**
- 함께: **대흥동 34.8%** · 용두동 6.2%
  거점 중 한 곳만 방문 59.2%

대흥동
일평균 방문 **48,576명** · 2위

- 어디서: 대전 서구 16.0% · 동구 14.6% **경기 12.2% · 서울 8.5%**
- 누가: **30세 미만 여성 23.6%**
- 함께: **은행선화동 37.0%** · 대사동 9.8%
  거점 중 한 곳만 방문 57.7% · 5곳 중 최저

지도 보는 법 ▭ 주요 방문거점

색 = 행정동 유형 · 어디서 오나 × 얼마나 자주 오나

	저빈도 (방문일수 적음)	고빈도 (방문일수 많음)
대전 밖 유입 많음	**대전 밖 유입형** 50.3% · 2.3일	해당 없음
대전 내 유입 중심	**대전 내 저빈도형** 39.1% · 2.7일	**대전 내 고빈도형** 33.8% · 3.6일

* 행정동 유형: 대전 외 유입비중·평균 방문일수 군집분석(칸 안은 유형 평균) · 함께: 같은 날 해당 동 방문 비율 · 한 곳만 방문: 같은 날 5개 거점 중 1곳만 방문

붙임 4 지역맞춤형 생활인구 심층분석 시범사업 개요

□ 생활인구란?

○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, 등록외국인 등 등록인구와 통근·통학·관광·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일정 시간 머무는 체류인구*를 함께 파악하는 통계

* 체류인구는 등록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

- 실제 머무른 사람을 기준으로 한 체류 기반 실측 통계로, 통신·카드 등 민간 데이터와 주민·외국인등록 등 공공데이터를 가명결합하여 작성

□ 왜 지역맞춤형 심층분석을 하나?

○ 기존 생활인구 공표자료도 시군구별 생활인구 규모와 체류일수·시간·재방문 등 체류 특성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나, 지역별 정책현안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는 읍면동·일자·시간대 등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

- 지방정부의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심층분석을 실시하고, 분석결과가 지역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협업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

□ 어떻게 추진했나?

○ 행정안전부, 국가데이터처(본부·지방청),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

- (국가데이터처) 사업 총괄, 분석자료·방법 마련 및 지역별 심층분석 및 결과 작성
- (행정안전부·지방정부) 지역 현안과 정책수요 제시, 분석결과 검토 및 정책 활용

○ 수요조사 → 분석주제 설정 → 심층분석 → 결과 검토·보완 → 정책 활용

□ 어떻게 분석했나?

ㅇ 지역의 정책현안 및 특성에 맞춘 유입·체류·이동·소비 특성을 심층분석

유형	시범지역	주요 분석방향
관광형	경기 가평군	계절에 따른 체류·재방문 특성 및 읍면별 방문특성
도서형	전남광주 신안군	거리·접근성에 따른 체류행태 및 주변지역 연계이동
도시형	대전 중구	주요 방문거점 간 이동 및 주변 원도심으로의 체류 확산

□ 앞으로는?

ㅇ 시범사업에서 활용한 분석방법과 사례를 정리해 인구감소(관심)지역으로 분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산

ㅇ 행정안전부·데이터처·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역별 분석수요를 지속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지원